

14. 깊은 산속에서

이름: _____ ()학년 ()반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div> 12345 </div> <div> 春去花猶在요 </div> <div> 춘거화유재 </div>	<div> 春봄 去가다 花꽃 猶오히려 在있다 </div>
풀이	<div> • 猶: 오히려 </div> <div> ▶ 봄은 갔으나 꽃은 오히려 남아 있고, </div>	
문장	<div> 天晴谷自陰이라. </div> <div> 천청곡자음 </div>	<div> 天하늘 晴개다. 맑다 谷골짜기 自저절로 陰그늘 </div>
풀이	<div> • 自: 저절로 </div> <div> ▶ </div>	
문장	<div> 杜鵑啼白晝하니, </div> <div> 두견제백주 </div>	<div> 杜막다 鵑두견이 啼울다 白희다 晝낮 </div>
풀이	<div> • 白晝: 대낮, 한낮 </div> <div> ▶ </div>	

문장	始 覺 卜 居 深이라. 시 각 복 거 심	始 비로소 覺 깨닫다 卜 살다 居 살다 深 깊다
풀이	• 卜居: 살다 ▶	

※ 깊은 산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白楊 백양 •		• 바짝 가까이 나아감.
伯姪 백질 •		• 정밀하고 교묘함.
淡泊 담박 •		• 만조카. 만형의 만아들
拍手 박수 •		•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다.
迫進 박진 •		• 손뼉을 마주 두드리거나 침.
快晴 쾌청 •		• 황철나무
淸掃 청소 •		• 격렬한 감정.
激情 걱정 •		•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함.
精巧 정교 •		• 욕심이 없고 순박함.

〔나〕

禽獸 금수 •		• 무나 풀과 같이 한곳에 고정하여, 공기·흙·물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아가는 생물.
植物 식물 •		• 액을 당할 운수.
家畜 가축 •		• 날짐승과 길짐승. 곤, 모든 짐승.
厄運 액운 •		• 집에서 기르는 짐승 《소·말·개·닭 따위》.

〔다〕

特徵 특징 •		• 영웅과 호걸을 함께 이르는 말.
文段 문단 •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일.
基盤 기반 •		• 글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위.
英雄豪傑 영웅호걸 •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事件 사건 •		•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
敍事 서사 •		• 배우가 무대 장치와 조명, 음악 등의 도움을 받아 각본에 따라 연기하여, 관객에게 보이는 종합 예술.
形態 형태 •		• 기초가 될 만한 바탕. 기본이 되는 토대.
具顯 구현 •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演劇 연극 •		•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要素 요소 •		•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있어야 할 성분 또는 조건.

【꼭 알아 둬시다】

■ 한시의 이해

- 대우법
 - 한 구의 시 안에서 서로 이웃한 두 구가 짝이 되게 하는 수사법이다.
 - 읊시의 함련과 경련에서는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
- 5언시 띄어 읽기: 2자/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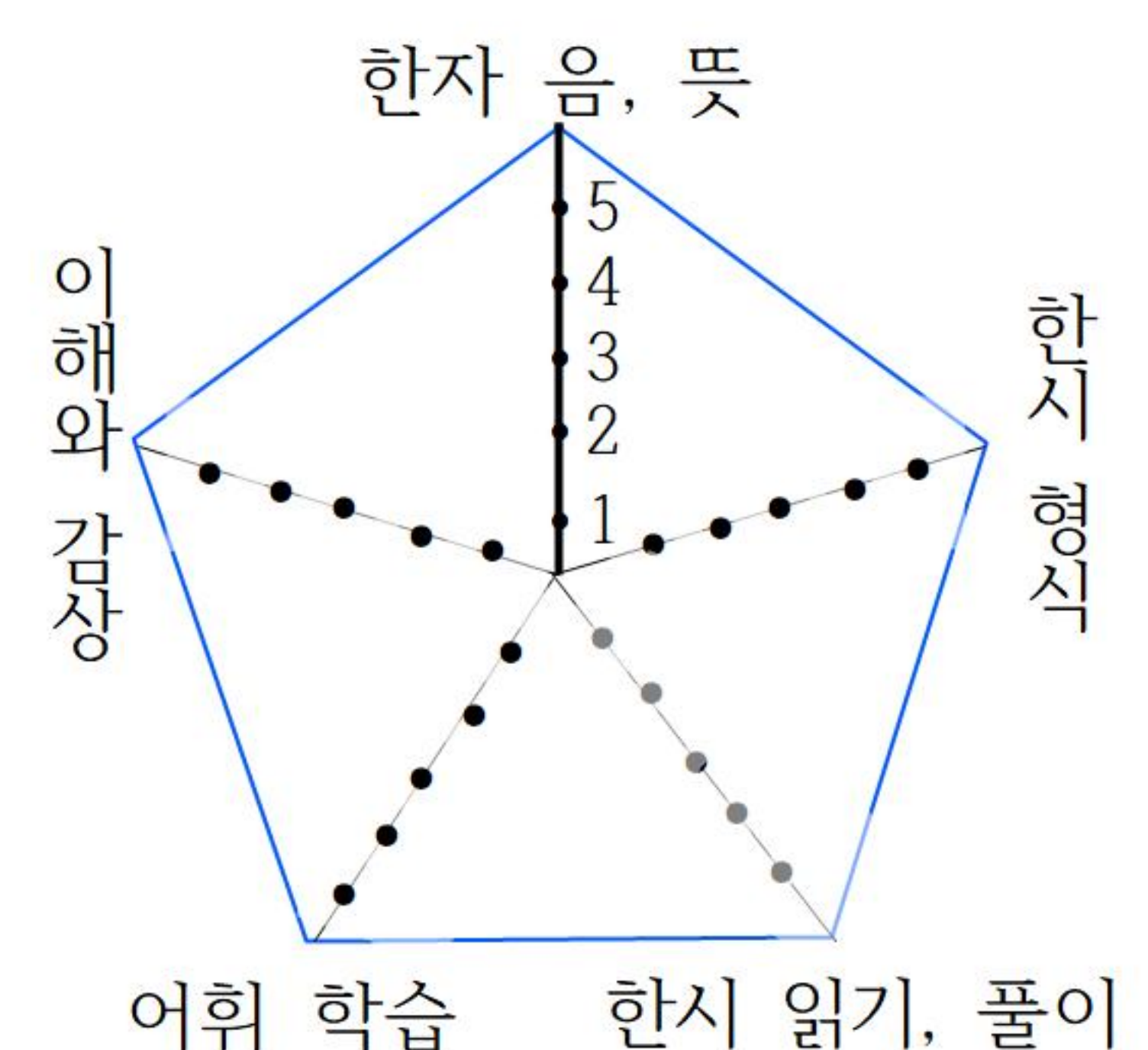
■ 작품 이해와 감상

- 두견의 또 다른 명칭: 귀촉도, 불여귀, 자규 등
- 시의 배경: 작가가 경상도 미송산(美崇山)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 있던 반룡사에 들러 지은 시이다. 깊은 산속의 풍경을 보며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감상: 이 작품은 ‘거(去) - 재(在)’, ‘청(晴) - 음(陰)’, ‘백주(白晝) - 유심(幽深)’ 등의 대조적 표현을 통해 산거의 유심함을 강조하려는 흔적을 보여 준다. 고려인의 자연 친화와 은둔사상을 엿볼 수 있다.

■ 이인로와 두견

- 이인로: 최초의 시화집인 <파한집>을 저술하여 한국문학사에 본격적인 비평문학의 길을 열었다. 저서로 <은대집> 20권, <후집> 4권, <쌍명재집> 3권, <파한집> 3권을 저술했다고 하나, 현재 <파한집>만 전하며, <동문선>과 <보한집>에 120여 편의 시문이 남아 있다.
- 두견: 두견이는 대체로 그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恨)이나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는 시가문학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다. 일찍이 고려시대에 정서(鄭敍)가 지은 「정과정(鄭瓜亭)」에는 “내 님을 그리사와 우니다니 산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라고 하여 유배지에서의 외로운 신세를 산 접동새에 비기어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조년(李兆年)이 지었다는 시조에도 자규가 등장한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銀漢)이 삼경인제/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야 알라마는/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서 자규는 달 밝은 밤 삼경에 울어 춘심을 자극하는 새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15. 산사의 밤에

이름: _____ ()학년 ()반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蕭 ¹ 蕭 ² 落 ³ 木 ⁴ 聲 ⁵ 을, 소 소 락 목 성	蕭 바람 부는 소리 蕭 바람 부는 소리 落 떨어지다 木 나무 聲 소리
풀이	• 蕭蕭: 우수수 바람 부는 소리 ▶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문장	錯 ¹ 認 ² 爲 ³ 疏 ⁴ 雨 ⁵ 라. 착 인 위 소 우	錯 잘못 認 알다 爲 여기다 疏 성기다 雨 비
풀이	• 爲: ~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	
문장	呼 ¹ 僧 ² 出 ³ 門 ⁴ 看 ⁵ 하니, 호 승 출 문 간	呼 부르다 僧 스님 出 나가다 門 문 看 보다
풀이	• 僧: 여기에서는 동자승을 의미하기도 함. ▶	

문장	月 掛 溪 南 樹 ^{라.} 월 괘 계 남 수	月 달 掛 걸다 溪 시내 南 남쪽 樹 나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月: 시간적 배경을 나타냄. <p>▶</p>	

※ 산사의 가을밤 풍경.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生栗 생률 • 空欄 공란 • 梅蘭菊竹 매란국죽 • 株式 주식 • 機械 기계 • 環境汚染 환경오염 • 雪山 설산 • 層雲 층운 • 電荷 전하 • 霧散 무산 • 幽靈 유령 •	• 자원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각종 교통 기관이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와 가스, 그리고 농약 따위로 사람과 동식물의 환경을 더럽히는 일. •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 지평선과 나란히 층을 이루고 땅에 가장 가깝게 끼는 구름. •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靜電氣)의 양(量). •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안개가 걷히듯 흩어져 사라짐. • 죽은 사람의 혼령. • 지면(紙面)에 글자 없이 비워 둔 난. •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 • 눈이 쌓인 산. • 날밤.
---	---

〔나〕

看過 간과 • 概觀 개관 • 巡察 순찰 • 凝視 응시 • 疾視 질시 •	•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 •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뚫어지게 봄. • 대충 보아 넘김. • 멍게 봄. • 대충 살펴봄.
---	---

〔다〕

萬化方暢 만화방창 • 悠悠自適 유유자적 • 孤峯絶岸 고봉절안 • 山紫水明 산자수명 •	• 우뚝 솟은 산과 깎아지른 낭떠러지 • 산은 자줏빛이며 물은 깨끗하다는 뜻으로, 경치가 아름다움. •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고 마음 편히 삶. •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 흐드러짐.
--	---

〔라〕

韻律 운율 • 振動 진동 • 調音 조음 • 複合 복합 • 影響 영향 • 反復 반복 •	• 흔들려 움직임.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같은 일을 되풀이함. • 시문(詩文)의 음성적(音聲的) 형식. •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침. • 말소리를 내기 위하여 여러 음성 기관을 움직이는 것.
--	---

【꼭 알아 둬시다】

■ 한시의 이해

• 압운법: 한자는 초성 중성 종성의 세 가지 소리로 나뉘는데, 초성을 자모(字母)라 하고, 중성과 종성을 합해서 운모(韻母)라 한다. 이 운모가 같고 성조도 같은 계열의 글자로 맞추는 것을 '압운(押韻)'이라 하고, 한 수의 시 안에서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 한다. '압운법(押韻法)'이란 한시에서 정해진 자리에 같은 음조(音調)를 가진 글자, 즉 운자를 놓는 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짝수 구의 끝에 압운을 배치하되, 첫째 구의 끝에는 압운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4행으로 이루어진 '오언절구'의 경우 시의 2행과 4행 끝에 운자를 배치하고, '오언율시'의 경우, 시의 2, 4, 6, 8행에 운자를 놓게 된다.

■ 작품의 이해와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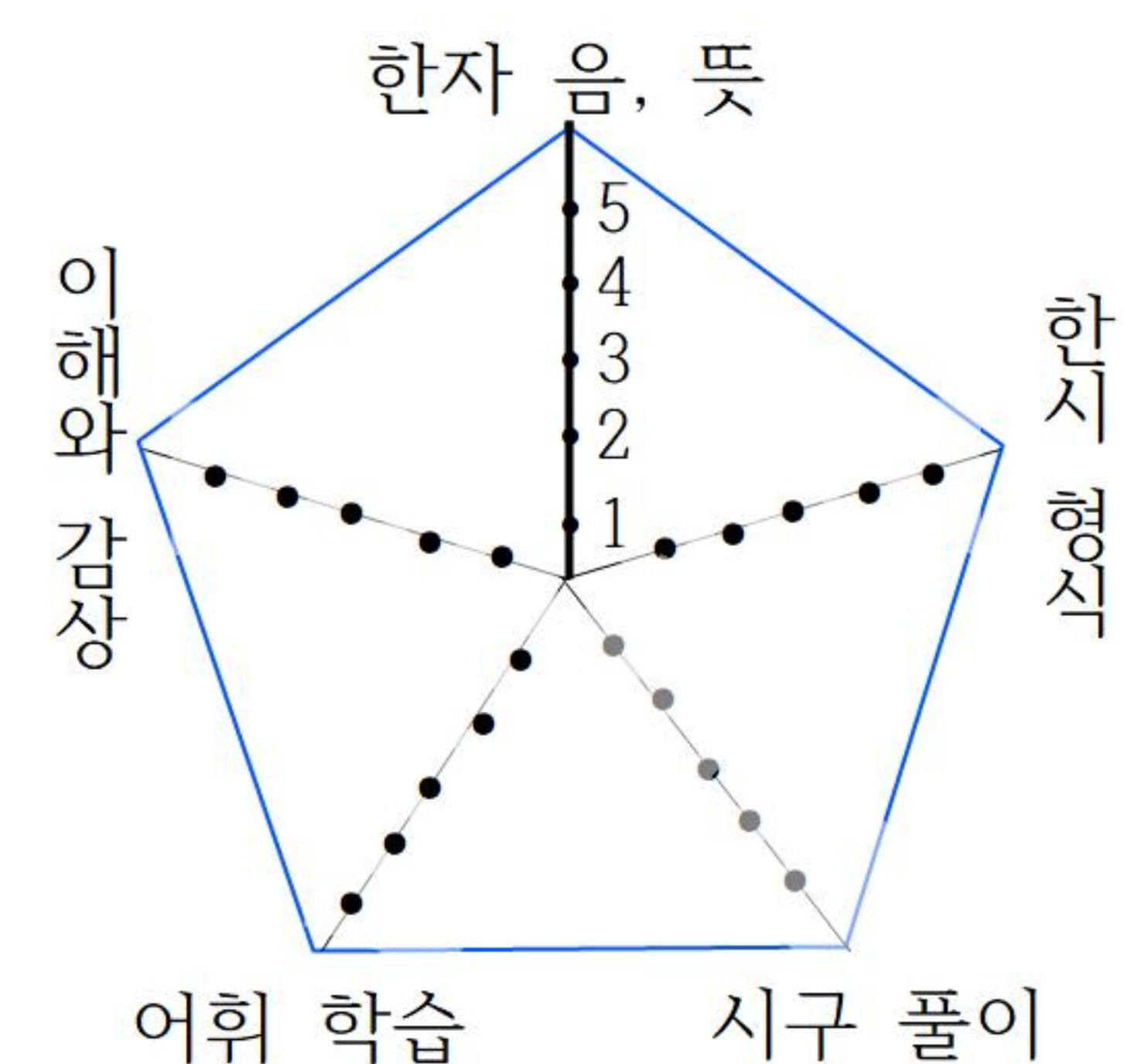
이 작품은 오언절구로 『송강집속집(松江集續集)』 권1에 '산사야음(山寺夜吟)'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고, 『대동시선(大東詩選)』 권3에는 '추야'란 제목으로 선록되어 있다.

이 詩는 송강 정철이 늦은 가을 깊은 산속의 절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바람에 우수수 지는 낙엽소리를 들으며 지은 것이다. 번다한 현실을 벗어나 모처럼 忙中閑망중한을 즐기고 있는데, 밤이 깊었으나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는 듯하다.

■ 鄭澈정철(1536 중종31 ~ 1593 선조26)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시인이다. 본관은 延日(연일)이고 호는 松江(송강)이며 자는 季涵(계함)이다. 젊어서 김인후, 기대승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배우고, 이이, 성혼 등과 교유하였다. 1580년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관동별곡' 등을 지었고 1585년 관직을 떠나 고향에 돌아가 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때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 수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었다. 1589년 우의정으로 발탁되고 이어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다. 서인의 영수로 동인의 모함을 받아 사직하고 강화도 송정촌에 우거하며 만년을 보냈다. 당대의 가사문학의 대가로 윤선도와 함께 한국시가 사상 쌍벽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16. 입을 그리며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1234567 近來安否問如何 _{오?} 근래안부문여하	近 가깝다 來 오다 安 편안하다 否 아니다 問 묻다 如 같다 何 어찌
풀이	•如何(=何如): 어떠한가? ▶ 요사이 (임의) 안부를 여쭙니다. 어떠하신지요?	

문장	月白紗窓妾恨多 _{라.} 월백사창첩한다	月 달 白 희다. 밝다 紗 깃, 비단 窓 창문 妾 첩 恨 한 多 많다
풀이	•紗窓: 여인이 거처하는 방을 의미함. ▶	

문장	若使夢魂行有跡 _{이면,} 약사몽혼행유적	若 만약 使 하여금 夢 꿈 魂 녀 行 다니다 有 있다 跡 자취
풀이	•若: 만약 ▶	

문장	門 前 石 路 已 成 沙 ^라 . 문 전 석 로 이 성 사	門 前 石 路 已 成 沙 문 앞 돌 길 이미 이루다 모래
풀이	•已: 이미, 벌써 ▶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顧問 고문 •	• 일반 사람들 사이.
醜聞 추문 •	• 윤년에 드는 달.
巷間 항간 •	•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閑寂 한적 •	• 의견을 물음.
閏月 윤월 •	• 두 곳 사이의 떨어진 정도
催促 최촉 •	•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
捕捉 포착 •	• 어지럽게 갈래가 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距離 거리 •	•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軌跡 궤적 •	• 한가하고 고요함.
迷路 미로 •	• 하는 일을 빨리 하도록 죄어침.

〔나〕

近郊 근교 •	• 뉘우치고 한탄함.
側近 측근 •	• 높은 분이나 어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
小幅 소폭 •	• 결의 가까운 곳.
最小 최소 •	• 죽어서 세상을 떠남.
悔恨 회한 •	• 가수 분해를 하면 2~10개의 단당류로 생성되는 당류
痛恨 통한 •	•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
逝去 서거 •	• 도시에 가까운 변두리 지역.
急逝 급서 •	• 좁은 범위
稀少 희소 •	• 일정하게 정한 금액.
少糖類 소당류 •	• 가슴 아프게 몹시 한탄함.
局限 국한 •	• 드물고 적음.
限度額 한도액 •	• 수나 정도 따위가 가장 작음.

〔다〕

倒置法 도치법 •	• 어구(語句)를 점점 겹치어 써서 차차로 문장의 뜻을 강화시켜 독자의 느낌을 절정으로 이끄는 수법.
漸層法 점층법 •	• 감탄사나 강조 어미 등을 써서 놀라움·기쁨·슬픔 따위의 감정을 강하게 또는 간절하게 나타내는 방법.
詠歎法 영탄법 •	• 정상적인 글의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문장상의 한 표현 기법
連鎖法 연쇄법 •	• 앞 구절의 말을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이어가는 방법.

【꼭 알아 둬시다】

■ 한시의 이해

- 7언시 띄어 읽기: 4자/3자
- 절구에는 5언 절구와 7언 절구가 있다. 5언 절구는 5언 4구 20자이고, 7언 절구는 7언 4구 28자이다. 율시와 마찬가지로 후대에 생겨났으므로 근체시에 속한다.

■ 작품의 이해와 감상

이옥봉의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한 여인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7언 절구의 한시로, 꿈속에서 임과 만나는 것을 가정하여 자신의 정서를 독창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자술’은 ‘스스로 진술하다.’라는 의미로 이 시의 또 다른 제목은 ‘몽혼(夢魂; 꿈속의 넋)’이다. ‘자술’은 시적 화자가 꿈속의 넋을 이야기하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제목이라면, ‘몽혼’은 ‘꿈속의 넋’ 이라는 이 시의 소재를 드러내는 제목이 된다.

■ 이옥봉과 그의 작품

- 이옥봉: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 선조 때 이봉의 서녀(庶女)로 조원의 소실(小室)이 되었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 명나라까지 이름이 알려진 여류 시인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의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 많으며, 여성 시답지 않게 맑고 씩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32편이 수록된 “옥봉집” 1권이 전한다.

- 閨情(규정)_안방 여인네의 그리움 - 이옥봉(李玉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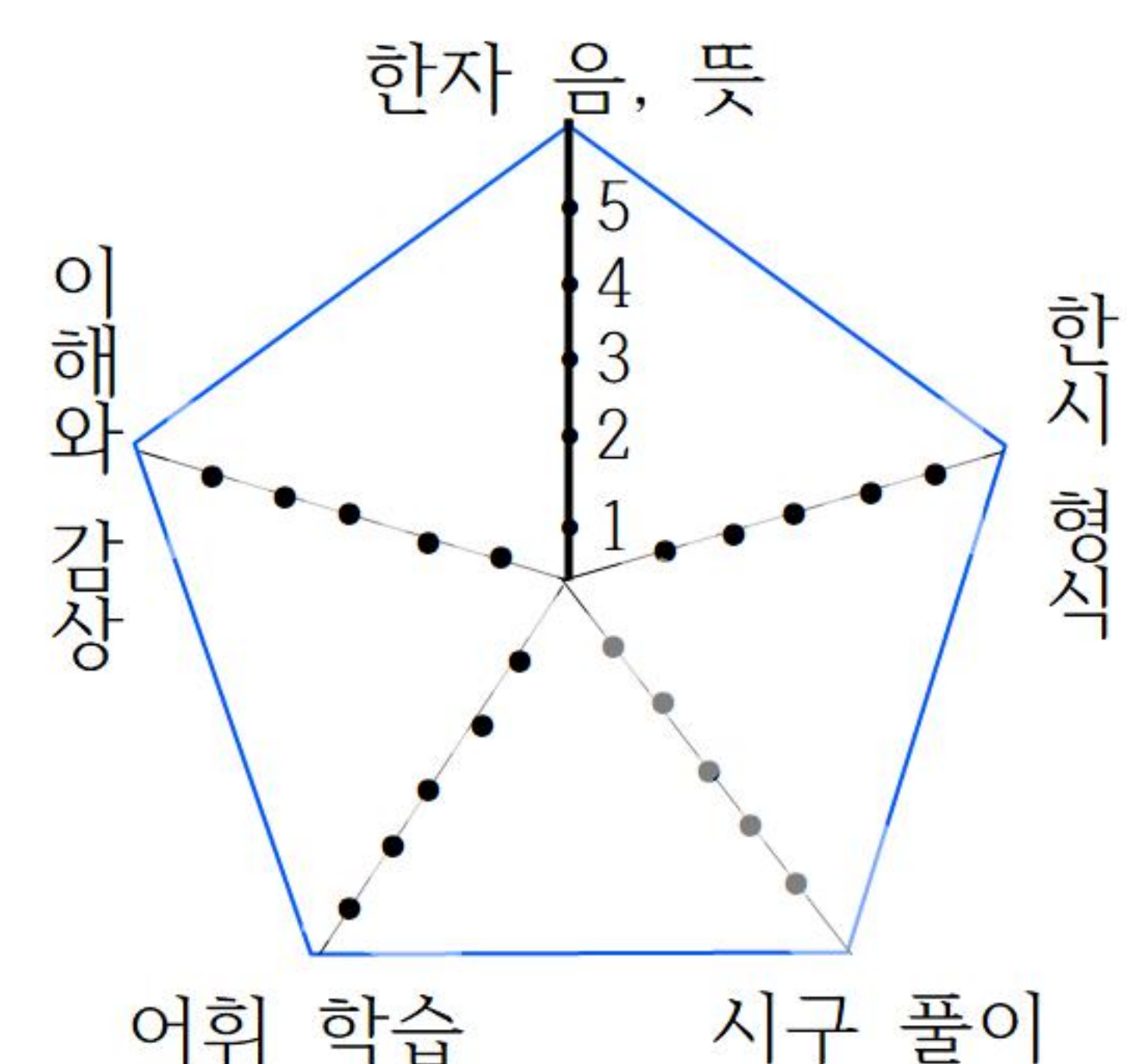
有約來何晚(유약래하만): 약속을 해놓고 어찌 이리 늦은지요,

庭梅欲謝時(정매욕사시): 뜰 앞의 매화꽃이 시들려고 하네요.

忽聞枝上鵲(홀문지상작): 문득 나무 위에서 까치 소리 들리자,

虛畫鏡中眉(허화경중미): 부질없이 거울보고 눈썹을 그려봅니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17. 정로정을 떠나며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1 2 3 4 5 船 下 廣 陵 去하니,	船 배 下 아래 廣 넓다 陵 언덕 去 가다
풀이	• 廣陵: 지금의 강소성 양주시 ▶ 배는 광릉으로 내려가고	

문장	月 明 征 虜 亭이라.	月 달 明 밝다 征 치다 虜 포로 亭 정자
풀이	• 征虜亭: 강소성 남경시에 있던 정자 이름 ▶	

문장	山 花 如 繡 頰이요	山 산 花 꽃 如 같다 繡 수놓다 頰 뺨
풀이	• 如: ~와 같다. ▶	

문장	江 火 似 流 螢이라. 강 화 사 유 형	江 강 火 불 似 같다 流 흐르다 螢 반디
풀이	<p>•似: ~와 같다.</p> <p>▶</p>	

※ 배 위에서 느끼는 봄밤의 정취.

※ 한시를 읽고 난 후 감상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似而非 사이비 • 使役 사역 • 仲裁 중재 • 委任 위임 • 企劃 기획 •	• 남을 부려서 일을 시킴. • 일의 처리를 남에게 책임 지워 맡김. • 겉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 일을 계획함. • 다툼질의 사이에 끼어들어 화해를 시킴.
---	---

〔나〕

明珠 명주 • 糾明 규명 • 暗標 암표 • 暗誦 암송 • 上司 상사 • 上策 상책 • 下旬 하순 • 部下 부하 •	• 가장 좋은 껌. • 시나 문장 따위를 보지 않고 소리 내어 읽. •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 한 달 가운데 21일부터 그믐날까지의 동안. • 빛이 곱고 아름다운 구슬. • 자기만 알도록 넌지시 눈으로 표함. 또는 그런 표. • 자기보다 벼슬이나 지위가 위인 사람.
--	---

〔다〕

建築物 건축물 • 樣式 양식 • 官廳 관청 • 構造 구조 • 擴張 확장 • 實際 실제 • 休息 휴식 • 宴會 연회 • 捕盜廳 포도청 • 御營廳 어영청 • 八角亭 팔각정 • 洗劍亭 세검정 • 慶會樓 경회루 • 浮碧樓 부벽루 • 藏書閣 장서각 • 報漏閣 보루각 •	• 실지의 경우나 형편. • 범위·규모·세력 등을 늘려서 넓힘. • 조선 때,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던 관청. • 서울 경복궁 서쪽 방지 안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 • 서울특별시 경복궁 뒤 창의문 밖에 있는 정자(칼을 씻음.) • 국가 사무에 관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 • 잠깐 쉽. • 예전에, 궁궐 안에 책을 간직해 두던 서고 •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 여러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서 이룸. • 평안남도 평양시 모란대 밑 청류벽 위에 있는 누각 • 건축한 집이나 시설. • 조선 시대, 자격루를 표준 시계로 하여 설치하였던 전각 •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즐기는 모임. • 조선 때, 군영의 이름 • 지붕이 여덟 모가 지게 지은 정자(亭子).
--	---

【꼭 알아 둬시다】

■ 한시의 이해

• 시상 전개 방식: ‘절구’에서 제1구, 즉 ‘기구(起句)’는 시인에게 떠오른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제2구, 즉 ‘승구(承句)’는 ‘기구’의 의미를 이어 받아 이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며, 제3구, 즉 ‘전구(轉句)’는 장면과 사상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제4구, 즉 ‘결구(結句)’는 전체를 묶어서 여운과 감동이 깃들도록 끝을 맺는다. 이처럼 ‘기승전결’의 구조는 각 구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한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작품의 이해와 감상

이 시의 앞의 두 구절은 시인이 출발하던 시간과 지점 그리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月明’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햇빛이 비추이는 것만큼 밝지는 않지만 달빛을 받으며 실루엣과 같은 그런 몽롱한 배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시의 뒷 두 구절은 ‘여수협’과 ‘사유형’이라며 꽃과 등불을 비유하고 있다. 또한 정적인 분위기와 동적인 움직임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 이백과 두보의 만남

744년 당나라의 낙양에서 이루어진 만남, 44세의 나이로 문학적 재능이 만개한 상태의 분방하고 정열적인 시인인 이백과, 33세의 나이로 진지하고 다정다감한 무명의 문학청년인 두보가 낙양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걸출한 문학적 재능을 지녔다는 것 외에, 때를 못 만나 제대로 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며 기식자 생활을 하는 처지였다는 것 정도다. 출신성분, 인간성, 필치, 인생관 등, 그 밖의 다른 모든 면에서 그들은 달랐다. 낙양에서의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1년여 간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했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짧은 만남 긴 이별이었지만 만취해 한 이불을 덮고 잘 만큼 진한 우정을 나눴던 그들은 시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출했다. "술 잔뜩 먹고 되는데로 마음껏 뽐내는 모습은 대체 누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이백 또한 주선(酒仙)이라는 별칭에 합당한 시로 두보에 대한 정을 표현했다. "노나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제나라 노래를 불러도 감정에 북받쳐 울 뿐, 그대 생각은 문수(汶水)의 흐름과 같이, 도도히 남쪽으로 흐르고 흘러 그치지 않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